

IBK MAGAZINE

2022
AUTUMN

vol. 27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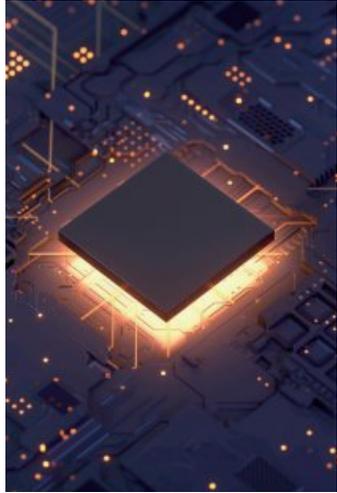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S P A C E



Semiconductor



New Space



Gold

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발행일 2022년 9월 1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2
기획·디자인·제작 이팝 02-514-7567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 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004 Hot Issue 1

칩4 반도체 동맹
긴 여정의 시작

010 Hot Issue 2

뉴스페이스 시대,
한국형 우주개발의 미래

016 Global Economy

국제 금값 하락세 원인
진단과 전망

022 Inside Go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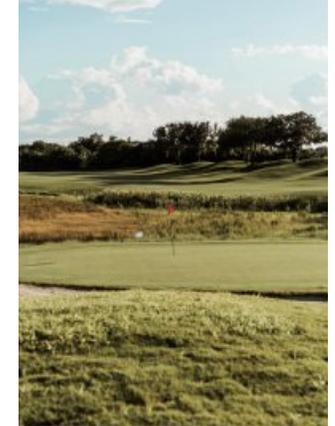
마주 보고 달리는 PGA투어와 LIV 골프

026 Tax Guide

종부세 세제개편안 검토 및 절세 방안

030 Investment

2022년 4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036 WM Special

고객을 위해 빛을 밝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다
Young Star PB

042 Trip To

수수하지만
우아하게 빛나는 역사

048 Tea Time

가을이 오니 차에도 가을빛이 우러나네

050 Culture Curation

가을바람이 실어 온 문화의 향기

052 Masterpiece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
에라니에서의 사과 수확



칩4 반도체 동맹 긴 여정의 시작

최근 칩4동맹의 한국 참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런데 이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읽을 수 있으며, 단순히 중국을 배제한다는 신호로는 볼 수 없다.
단순한 전망보다는 좀 더 길게 내다봐야 한다.

writing. 김흥규(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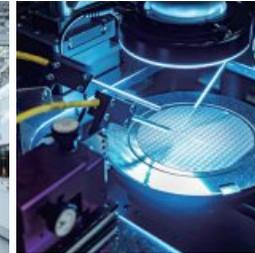
Chip 4



United States
반도체 설계, 장비 분야



Taiwan
파운드리 분야



Japan
반도체용 소재, 장비 분야



Korea
파운드리 분야

칩4동맹,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의 장

한국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칩4(Chip 4)의 칩은 반도체를, 4는 참여국 수를 뜻한다. 이들 4개국은 미래 제4차 산업 혁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닌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장비 분야에서, 한국·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일본은 반도체용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각기 강점을 지니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에 이들 네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를 칩4동맹이라고 부르기도는 팍4(FAB 4)라 부른다. 팍은 반도체 제조 설비를 뜻하는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에서 따온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8월 말까지 칩4동맹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성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제안

은 동맹제안이라기보다는 미국이 그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 제안의 참여 의미를 거의 미중 간 양자택일식의 엄중한 사안으로 이해한 듯하다. 중국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에 경고를 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 강국인 한국이 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만,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동맹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논의의 과정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칩4동맹이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게 된 이면에는 미중 전략경쟁이 내포하고 있는 위기의 절박함과 참여함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화의 결과 각국의 공급망은 대

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과연 참여 4개국 및 그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연대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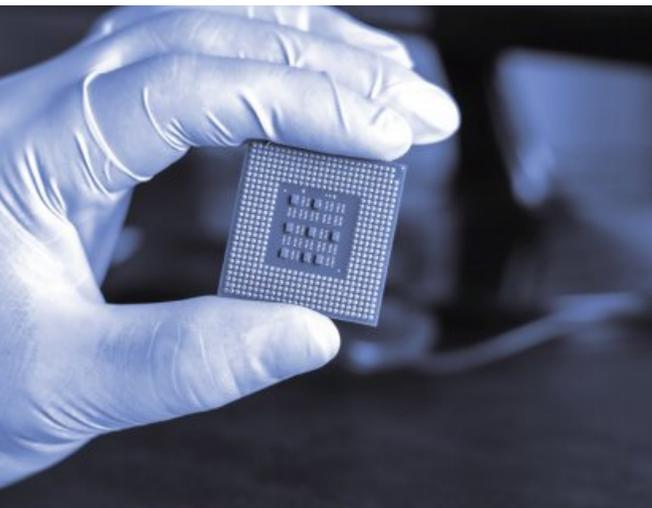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미국

최근 발의된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이룸(Chips Act)에서도 ‘칩’이란 개념이 들어간다. 또한 미국 연방상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총 2,800억 달러(약 363조 8,600억 원)를 투입하는 ‘반도체와 과학법’을 지난 7월 27일(현지 시각) 통과시켰다. 그간 입법이 지연되어 온 주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반도체 산업에 직접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520억 달러(약 67조 5,700억 원)로, 그중 390억 달러가 미국 내 반도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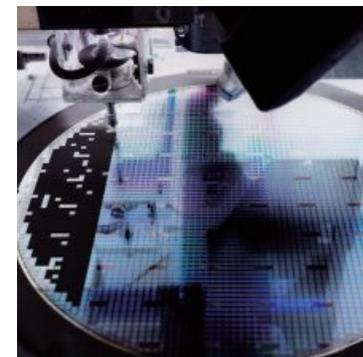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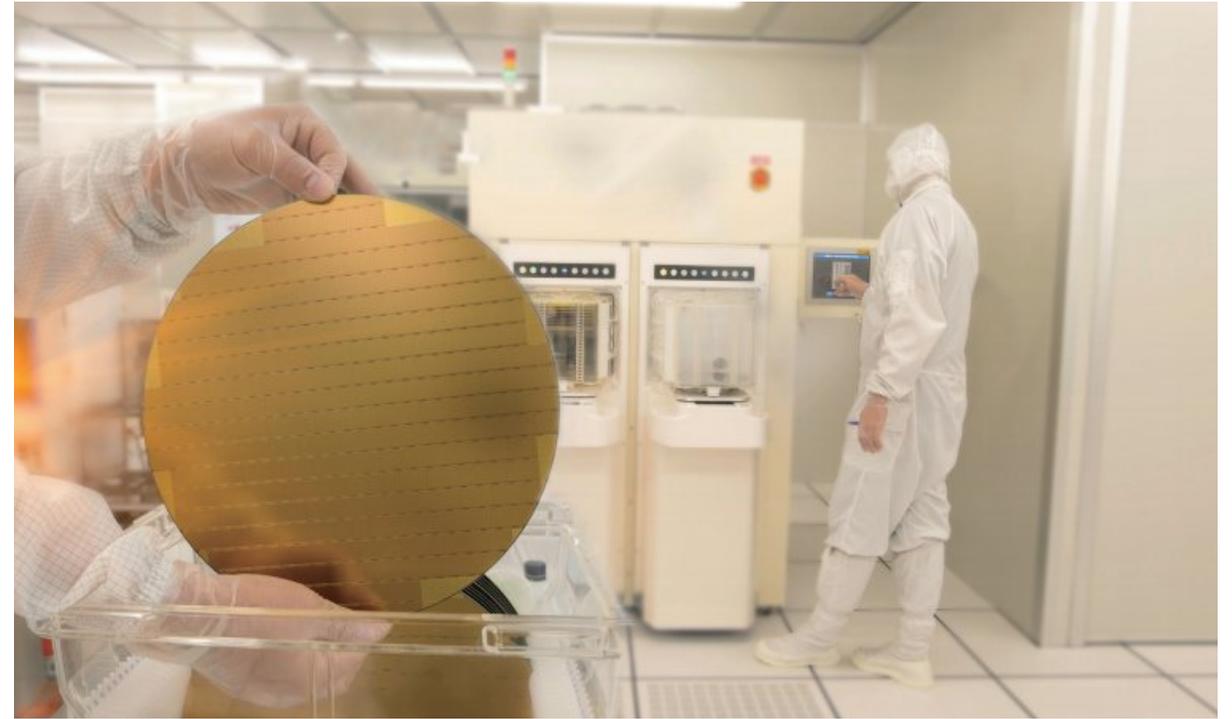
조 시설 건립에 배정된다. 이 법안에는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 상원은 추가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 분야 전반에도 거액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재단 역할 확대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술 허브 구축 등에 앞으로 5년간 1,000억 달러(약 129조 9,500억 원)가 쓰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미국의 계획에 호응하는 국내 반도체 생산 기업

국내 반도체 생산의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역시 미국의 이러한 계획에 일정 정도 호응하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반도체 설계와 설비에 있어 세계 최강이고,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 최종 소비에 있어서 중국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5월 미 텍사스주에 향후 20년 동안 이 지역에 250조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는다는 중장기



세계화의 결과 각국의 공급망은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과연 참여 4개국 및 그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연대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계획을 밝히면서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월 21일(현지 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등이 입수해 보도한 신청서에서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텍사스 테일러에 1,676억 달러를 들여 9개 공장을 신축하고, 오스틴에는 245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 2개를 신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재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운영 중이고, 테일러에는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월 27일 오전 3시(한국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면담에서 220억 달러(약 28조 8,000억 원) 규모의 미국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백악관은 7월 26일 오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SK그룹이 이미

투자 발표한 70억 달러를 포함하면 미국 투자 규모가 총 290억 달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절반 넘는 150억 달러 정도를 바이든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반도체 R&D(연구·개발) 등 생태계 조성에 쓰고, 나머지는 신사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수소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삼성과 SK의 미국 반도체 산업 투자 계획이 최종적으로 다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과 지원의 수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의 시작이 아닌 논의의 시작

미국이 제안한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대만과 일본은 이미 참여 의사를 전달했고, 한국 정부 역시 참여할 것이다. 한국

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측에 이러한 한국의 참여가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참여가 오히려 칩4가 단순히 반중 동맹으로 흐르는 상황을 억제하여, 실제 중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논리도 전달했을 법하다.

일본이나 대만은 미중 전략경쟁에도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대만은 자신들이 생산한 반도체의 60%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은 곧 대만 경제의 몰락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단 미국의 제안에 호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듯하면서도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고, 반도체 공급망으로 연결된 미국 기업들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 역시 자신들이 생산한 완성품의 최종 소비 국가가 중국이다. 이는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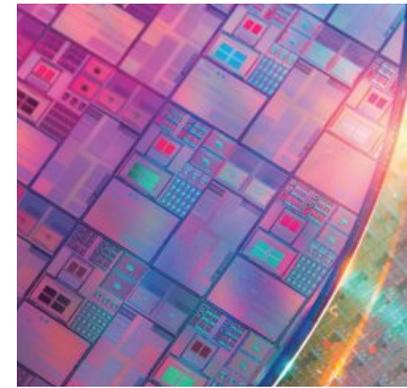


SUMMARY

Hot Issue
1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칩4동맹

‘칩4’의 칩은 반도체를, 4는 참여국 수를 의미한다. 이들 4개국(미국, 한국, 일본, 대만)은 미래 제4차 산업 혁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을 지닌 국가로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장비 분야에서, 한국·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일본은 반도체용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각기 강점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칩4동맹 가입 여부에 대한 최후통첩을 했는데, 이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 제안의 참여 의미를 미중 간 양자택일식의 엄중한 사안으로 이해한 듯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반도체 설계와 설비에 있어서 세계 최강이고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 최종 소비에 있어서 중국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 역시 자신들이 생산한 완성품의 최종 소비 국가가 중국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이러한 한국의 참여가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칩4동맹 결성은 결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 회담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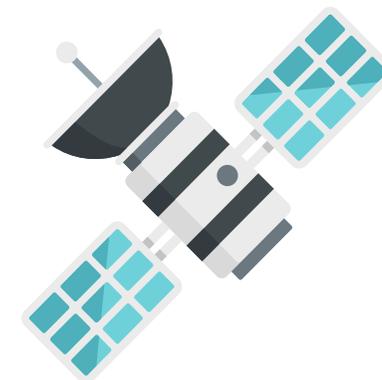
흔히 두렵게 언급하는 칩4동맹 결성이 결코 간단하지도 용이하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역시 최근 7나노 공정의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다고 알려졌다. 중국은 현 실리콘 기반 2세대 반도체 기술을 넘어, 새로운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SiC 특화 반도체에 해당하는 3세대 반도체 기술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핵심이다. 반도체 공급망 분야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어느 누구도 칼로 무 자르듯이 정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한국은 당연히 이 모든 논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배제당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8월 말 이후 개최되는 ‘칩4동맹’ 회담은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논의의 시작이고, 갈 길이 대단히 먼 여정에 불과하다. 향후 이 동맹의 추진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미국 기업들의 로비, 대체재의 미비, 각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헤징 전략이 맞물려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뉴스페이스 시대, 한국형 우주개발의 미래



한국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였다. 국제적인 입증을 위해서는 다누리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는 물론, 누리호 발사체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기회가 된 우주개발의 현재를 알아보고자 한다.

writing 허환일(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누리호 발사체로 우리 인공위성을 발사하다

바야흐로 우주 시대다. K-팝, K-방역에 이어 'K-우주시대'란 단어가 언론에 등장했다. 2021년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진정한 우주 독립국가가 되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 인공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장한 일이다. 한국은 무게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러시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6개국만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다.

발사체는 탑재체(위성, 사람 등)를 수송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마치 트럭이 짐을 실어 나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다만 발사체는 우주의 높은 위치(목표 고도)에 화물을 운송하되 화물이 지구를 계속해서 돌 수 있도록 화물(인공위성)에게 빠른 속도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발사한 누리호는 목표궤도인 700km에 투입되어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이번 발사의 화물인 탑재체는 성능검증위성인 것이다. AP위성(주)가 개발

한 성능검증위성은 4개 대학에서 개발한 초소형 큐브위성 4기를 몸속에 싣고 가서 우주공간에 큐브위성을 순차적으로 밀어내는 사출에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에는 나로호 개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던 경험이 누리호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값진 결과를 얻어 낸 것이다.

민간이 담당으로 추진 중인 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서비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에는 1조 9,5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대략 국민 한 사람이 4만 원을 지원한 셈이다. 전문 인력도 많이 투입되었다. 누리호 개발에는 300여 명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300여 개 기업에서 500여 명의 산업계 인력이 참여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약 80%인 1.5조 원 규모가 산업계에서 집행된 결과이다.

이번 발사를 통해 수송수단인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완료된 만큼 오는 2027년까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 발사를 실시하여 발사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략 7천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산업계에 기술을 이전하고 향후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과 발사 서비스를 민간이 담당하도록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올해 말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에는 우리나라 우주 대표 기업의 선정 및 육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웅을 겨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 주도로 움직일 발사체 시장

민간 기업에서는 스페이스X의 재사용발사체와 같은 경쟁력 있는 발사체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발

사체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이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이다. 비록 세계적인 차세대발사체는 아니지만 한국형 차세대발사체이고 세계시장에서 향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발사체를 개발하려고 한다. 체계종합기업이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발사체의 설계부터 참여하는 공동개발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이 종료되는 2031년 이후에는 민간 주도로 발사체 시장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위성 발사 수요를 독자적으로 만족시키고 다누리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달 착륙선을 우리나라 발사체로 발사하려고 한다. 여기에도 대략 2조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다.

지속적인 발사와 성공의 필요성

지난 8월 5일에는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였고 첫 번째 궤도 수정에 성공했다. 2023년 초에는 최종 성공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누리 개발에는 2,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다누리 발사에는 왜 누리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누리호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천억 원이 넘게 투입된 비싼 화물을 아직 신뢰성이 확보 안된 발사체에 곧바로 수송을 의뢰할 고객은 없다. 그래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발사와 성공이 필요한 것이다. 다누리 발사체 선정은 수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필자는 발사체선정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스페이스X와 인도의 발사체가 국제 입찰에 응하였다. 역시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의 팰콘 발사체가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발사체에서도 경쟁력은 정부 부문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다.



달의 지질과 자원 연구에 활용할 계획인 다누리

다누리는 2023년 1월부터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며 1년여간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누리에는 6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는데 미 항공우주청(NASA) 탑재체(새도우캠)를 제외한 5개의 과학탑재체는 국내의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직접 개발하였다. 달에는 70억 인류가 1만 년 동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헬륨-3'를 비롯한 귀중한 자원들이 매장돼 있다. 이번에 다누리 사업으로 달의 헬륨-3 지도와 티타늄 지도를 세계 최초로 제작·제공함으로써 달의 지질과 자원 연구에 활용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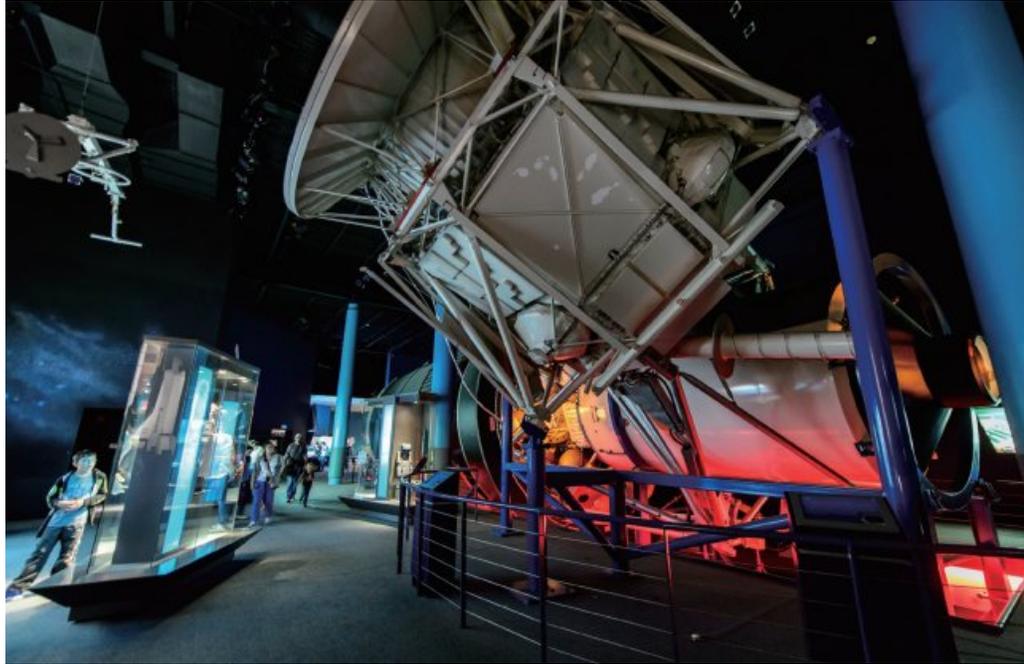
1979년 'UN 달조약'은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약이다. 달의 천연자원은 어느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관, 자연인의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 우주

활동이 미약한 국가가 가입 중이며, 미국·일본·한국 등 대다수 주요 우주개발 국가는 미가입상태여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왜 그럴까? 달에는 귀중한 자원이 많이 숨겨져 있으며 달 개발을 통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각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주탐사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우주개발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국내에 한정되어 진행된 수준이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이제 겨우 우리가 마련한 자동차를 우리 땅에서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국내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준이다. 우리가 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구를 넘어 달 또는 그 이상의 우주를 탐사하려면 국제협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국가 간에 서로 도움





이 되는 관계여야 한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국제 우주탐사 협력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실력을 보여야 한다. 과거에는 실력이 없어도 금전이 있다면 우주탐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국제 우주탐사에서 기술이 없는 국가는 협력 테이블에 끼워 주지 않는다. 미국 NASA의 탑재체를 싣고 출발한 다누리 달 궤도선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우리의 기술을 국제적으로 입증하여 우주탐사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보여 준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달 착륙선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 달에 1.8톤급 착륙선을 연착륙시키고 탐사로버로 월면토를 추출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원자력전지와 소형전력전지 기술도 활용된다. 미래 달 탐사 가치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현재 예타 수행 중인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여 우리의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예산은 6천억 원 정도이다. 국민 일 인당 1만 2천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9월 초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일이다.

독립적인 우주개발기구의 필요성

2020년대 후반에는 세계적으로 우주개발국이 현재의 약 30개국에서 85개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이 우주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세계 우주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개발은 우주경제, 즉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주관광, 우주광산 채굴, 우주거주지 건설, 우주태양광 에너지, 모두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등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하여

SUMMARY
Hot Issue
2

국제협력을 위한 우주개발의 필요성

2021년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진정한 우주독립국가가 되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한국은 무게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로써 2027년까지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 발사를 실시하여 발사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8월 5일에는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였고 첫 번째 궤도 수정에 성공했다. 2023년 초에는 최종 성공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누리 발사에는 누리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2천억 원이 넘게 투입된 비싼 화물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발사체에 곧바로 수송을 의뢰할 고객은 없다. 그래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발사와 성공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실력을 계속 보여야 하는 까닭은 우주를 탐사하려면 국제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 우주탐사에서 기술이 없는 국가는 협력 테이블에 끼워 주지 않는다. 미국 NASA의 탑재체를 싣고 출발한 다누리 달 궤도선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우주탐사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보여 준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독립적인 상설 우주개발기구를 조직하여 우주개발에 나서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상업 가능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지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와 흐름은 우주개발의 시작이 늦었던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우주개발을 이끄는 컨트롤투체인 우주청 등의 상설 독립기구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국방우주(우주안보) 개발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호주, 필리핀 등 우주 후발주자들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필두로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산권과 연구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상설 우주개발기구를 조직하여 우주개발에 나서야 한다.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핵심이다.

대선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또는 우주청의 명칭 문제와 아울러 지역 이슈가 불거졌다. 이제는 정권과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문가를 포함한 정부, 국회, 정치, 언론, 지자체 등 다양한 관련 주체가 모여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에서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가칭)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우주개발 전략을 수립, 즉시 실행에 돌입할 것이라 한다. 정치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우주개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지금 'K-우주시대'의 기로에 서 있다.



국제 금값 하락세 원인 진단과 전망

국제 금 시세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의 가격이다. 약 31.1g에 해당하는 1트로이온스당 가격으로 나타낸다.

금 선물은 올해 3월 초 1트로이온스당 2,000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8월 16일 현재 약 1,790달러에 거래되었다. 월말 가격 기준으로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11월 이후 처음 겪는 하락세에 국제 금값의 향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실질 가치를 방어하는 실물자산 금

국제 금값의 하락세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다져 온 금의 탄탄한 입지와 크게 대비된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물가가 오르면 동일한 금액의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다. 즉, 재화와 서비스 대비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경제학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로 표현된 화폐의 가치를 화폐의 '실질 가치'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화폐나 은행 예금의 형태로 주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산의 실질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만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 가치를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다. 금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의 실질 가치를 방어할 수단으로 입지를 다진 이유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야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경제 뉴스를 잠식하고 있는 지금 국제 금값은 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일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금에 대한 수요다. 금은 산업 필수 재료도 이용되는데, 산업용 수요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호황기에 증가하고 경기가 수축할 때 감소한다. 반면 자산으로서 금은 경기 국면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수요가 변화한다.

금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① 경기 침체기

뉴욕상업거래소의 금 선물 가격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기에 금값은 명목과 실질 모두 대체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떨어져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이 때 실질 가치가 안정적인 금은 안전자산으로 빛을 발한다. 특히 경제 위기가 닥쳐 경제 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면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

국제 금 선물 명목 및 실질 가격 추이 (NYMEX)



는 폭발적으로 늘어 금값이 크게 뛰곤 했다. 실례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금 선물 가격은 2009년 5월 1트로이온스당 980달러까지 올랐는데 이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1월 대비 24%나 상승한 가격이다. 동 기간 중 미국 주식 시장의 우량 기업 위주 지수인 S&P 500은 38% 폭락했다.

② 인플레이션 국면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식는다. 경기 호황기에는 높은 수익을 내는 금융 및 실물자산이 많아 아무 수익도 나지 않는 금의 매력에 반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도 다른 자산보다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기도 한다. 바로 인플레이션 국면이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앞서 언급했듯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미 달러화 역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도 역시 증가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에선 달러화도 화폐로서 그 가치가 하락하므로 수요가 감소한다. 그런데 미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국제 시장에서 금은 달러로 그 가치가 표시되고 매매에도 달러화가 주로 사용된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므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③ 금리

마지막으로 자산으로서 금의 수요를 결정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은 바로 금리다. 금은 실질수익률이 0이다. 금을 보유하더라도 채권이



경기 침체기에 금은 가격 방어가 유리한 데다 금리 인하 기조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채권이나 예금보다도 비교 우위를 보인다. 경기 침체기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화폐 대체 자산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수요 증대에 힘입어 경기 침체기에는 주로 금값이 상승한다.

Global Economy

나 예금과 달리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나 은행 예금과 같이 이자 수익률이 상승하는 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고 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시장 금리가 내려갈 때는 금과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간 수익률의 격차가 줄어들어 금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요약하자면 경기 침체에 금은 가격 방어에 유리한 데다 금리 인하 기조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채권이나 예금보다도 비교 우위를 보인다. 경기 침체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화폐 대체 자산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수요 증대에 힘입어 경기 침체기에는 주로 금값이 상승한다. 하지만 경기 호황기에는 수익률이 크게 상승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해 실질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금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금값이 올라갈 수도, 혹은 내려갈 수도 있다.



국제 금값 하락의 원인

지난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은 하락했지만 몇십 년 만에 닥친 인플레이션 공포에 국제 금값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중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을 때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고 반응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일찍부터 불붙진 않았다. 물론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을 위협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 말 하락 추세로 반전되었을 때 국제 금값은 지속적으로 올라 다시 한 번 금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했다. 하지만 금값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고점을 기록한 올해 3월 초 이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금값의 움직임은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미국 국채는 금만큼 안전하지만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금을 대체했다.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부진한 경기다. 코로나 위기에 더 취약했고 경제 회복도 더뎠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미국이 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세의 차이는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미 연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빨리 통화 긴축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이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달러화 강세는 금의 가격 메리트를 낮춰 국제



금값 하락에 기여했다. 여기에 금 소비가 큰 중국이 경기 둔화로 금에 대한 수요를 줄이며 국제 금값 하락에 일조했다.

향후 금값 상승의 움직임

① 경기 침체 본격화

앞으로 국제 금값은 어떻게 될까? 미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금리의 움직임이 금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잡을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금의 비교 우위도 빛을 잃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국제 금값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이 점차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연이어 세계 및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왔는데 지난 7월 말 전망에서는 미국과 유로 지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치의 절반으로 수정했다. 특히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대응에는 효과적이거나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내년 초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 미 연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이 역시 금값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② 달러화 가치의 하락

둘째, 미 달러화의 강세가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영란은행이 1997년 독립 이후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한 데서 보듯이 유럽의 물가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이 국가들이 금리를 더 인상하면 미 달러화 강세는 둔화될 것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로 계산되는 달러 인덱스는 유럽 중앙은행의 빅스텝 단행 이후 다소 하락했다. 또한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이 미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유럽이나 중국과 미국 간 경기의 간극이 줄어들어 미 달러화 강세 기조가 꺾일 것이다. 이는 달러 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금의 가격 메리트를 높여 금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다. 주춤하던 금 가격이 다시 오르기 전에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비중을 높이기를 추천한다.

마주 보고 달리는 PGA투어와 LIV 골프

writing. 민학수(조선일보 스포츠전문기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LIV 골프가 세계의 '골프 플랫폼'을 지배해 온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 도전장을 내밀고 지난 6월 첫 대회를 런던에서 치른 지 3개월이 흘렀다. 지금까지도 누가 이길지 예측을 허락하지 않는 전면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LIV 골프와 PGA투어의 이어지는 충돌

LIV 골프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약 3,000만 달러~2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 속속 PGA투어의 스타 선수들을 데려가고 있다. 올해 8개 대회인데 내년에는 14개 대회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핵심 선수인 필 미켈슨(미국)이 연이은 실언을 쏟아내 여론의 역풍을 맞을 때만 해도 '실패한 미켈슨의 쿠데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한 사우디 슈퍼 골프리그'란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껏 상상하지 못한 돈 잔치가 점점 더 LIV 골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PGA투어는 "LIV 행은 곧 PGA 탈퇴"라는 선언을 하고는 LIV 골프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플레이오프에도 나설 수 없게 만들었고 내년도 투어 카드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PGA투어의 입김이 강한 OWGR(Official World Golf Ranking) 사무국은 LIV 골프 대회에는 세계 랭킹 포인트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대적인 고사 작전이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가 골프의 미래” vs “등돌린 자들의 돈 잔치”

LIV 골프는 F1(Formula One)처럼 개인전과 단체전을 혼합하여 48명이 컷 탈락 없이 3라운드 54홀 경기를 치른다. 샷건 방식(모든 홀에서 동시 티오프 방식)으로 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하게 돼 날씨의 영향을 똑같이 받으며 갤러리에게 정숙을 요구하는 PGA투어와 달리 더 시끄럽게 응원해 달라고 부탁한다. 대회마다 개인전 우승상금 400만 달러에 별도의 단체전 상금(우승팀 4명에게 각각 75만 달러)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움직인다. 그래서 LIV 골프는 자신들이 골프의 미래라고 주장한다.

LIV 골프를 이끄는 호주의 골프 레전드 그레그 노먼(LIV 골프 인베스트먼트 CEO)은 “우리의 발전 속도가 빨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PGA투어와 합병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는 LIV 골프의 영입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7월 제150회 디오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 “LIV 골프로 간 선수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 준 PGA투어와 DP 월드투어(유러피언투어)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다. LIV 골프 소속 선수들은 거액을 선급으로 받고 몇 가지 이벤트를 하고 54홀 경기를 펼친다. 힘들게 연습할 이유가 없다. 72홀이 아닌 54홀은 시니어 투어에서나 하는 것이다.”



PGA투어는 왜 강경책을 고수하나

PGA투어는 LIV 골프의 “싸우지 말고 함께 살자”는 공생 주장을 속이 들여다보이는 술책이라고 간주한다. LIV 골프는 메이저 대회와 PGA투어의 특급 대회 기간에는 대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엄청난 계약금을 받은 LIV 골프 선수들이 PGA투어 대회에 선택적으로 참가할 경우 사실상 LIV 골프는 슈퍼 골프리그가 되고, PGA투어는 마이너리그로 전락하게 된다.

베테랑 어니 엘스(남아공)가 타협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PGA투어가 4대 메이저 대회와 페덱스컵 플레이오프를 마친 가을에 3개월 동안 LIV 골프를 집중적으로 여는 방안이다. 이는 LIV 골프의 야망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같은 슈퍼 골프리그를 만들겠다는 노면은 최고 선수들이 뛰는, 최고 리그를 만들어 골프 플랫폼을 장악하면 PGA투어가 누리던 중계권을 비롯한 막대한 수입과 전 세계 골프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본다. PGA투어는 2018년 6월 디스커버리와 12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외 중계권, 플랫폼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CBS, NBC스포츠, ESPN과 2022년부터 9년간 연간 6억 8,000만 달러에 미국 내 TV·디지털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LIV 골프가 커지면 이런 계약이 더는 불가능해진다. PGA투어는 ‘돈에는 돈’ 전략도 구사한다. 자체 대회의 상금을 늘리고, LIV 골퍼처럼 스타 선수들만 참가하는 대회를 신설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LIV 골프에서 PGA투어 선수들이 투어 수익의 26%밖에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자, 올해부터 수익의 55%가 돌아가도록 바꿨다. PGA투어의 올해 예상 수익은 약 15억 2,000만 달러다.

이제껏 이런 ‘돈 바람’은 없었다

LIV 골프는 엄청난 돈 잔치에 어울리는 스타 선수들을 대회 때마다 서너 명씩 늘려 가는 방식으로 흥행몰이하고 있다. 1차 런던 대회 간판은 미켈슨, 더스틴 존슨(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였고, 7월에 열린 2차 포틀랜드 대회에선 브라이슨 디샴보(미국), 브룩스 켈카(미국), 패트릭 리드를 영입했다. 9월에 열린 3차 베드민스터 대회에선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폴 케이시(잉글랜드), 찰스 하월 3세(미국) 등을 내세웠다. 버바 왓슨(미국)도 부상이 낫는 대로 경기에 뛰기로 했다.

미켈슨은 2억 달러, 디샴보와 존슨은 1억 2,5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메이저대회 디오픈에서 우승한 캐머런 스미스(호주)는 1억 달러를 받고 합류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페덱스컵 우승자 패트릭 캔틀레이(미국), 애덤 스콧(호주),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등 PGA투어의 보석 같은 선수들이 LIV 골프에 합류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LIV 골프 소식에 밝은 한 선수는 “1억 달러 넘는 계약금도 바로 다음 날 통장에 넣어 준다고 들었다.”고 했다. LIV 골프의 배후에는 자산 운용 규모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버티고 있다. LIV 골프 운영 자금만 4년간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IV 골프는 내년 시리즈 대회 수를 올해의 8개에서 14개로 늘리면서 총상금을 올해 2억 5,500만 달러에서 1억 5,000만 달러가 늘어난 4억 500만 달러로 책정했다. 47개 대회 4억 8,260만 달러 규모로 열리는 올해 PGA투어에 비해 대회 수는 3분의 1이 안 되지만, 상금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대회 개최 장소도 올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열리던 것을 호주와 남미로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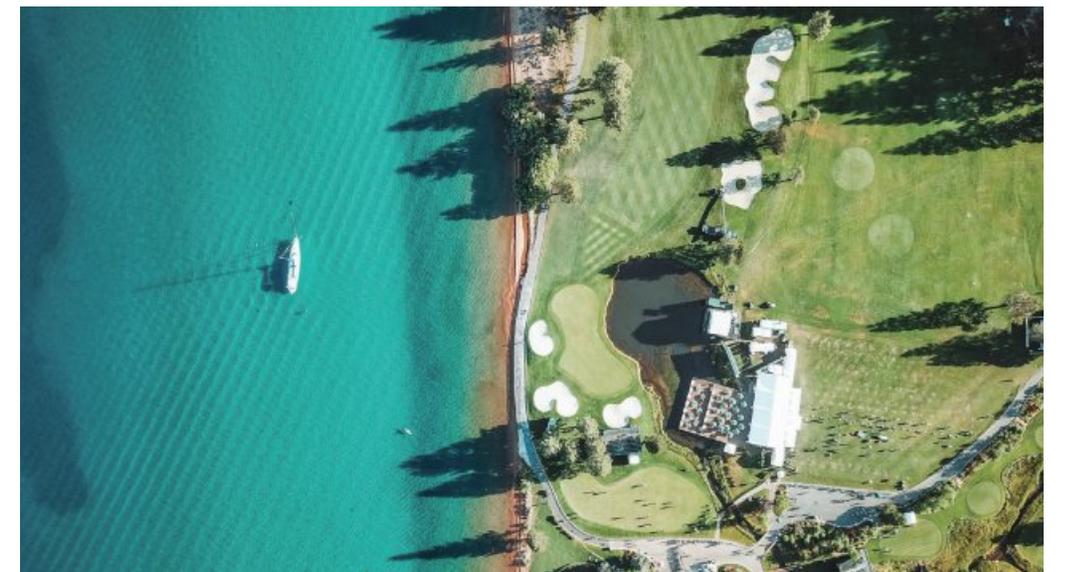
PGA투어와 미국 여론의 협공

PGA투어와 미국 여론은 LIV 골프를 협공하고 있다. 9·11 테러 유족 단체 대표인 테리 스트라다는 “9·11 테러에 관련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원하는 LIV 시리즈에 일부 선수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합류한다.”라고 비난한다. 미국 언론도 사우디 오일 머니의 불순한 의도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다. 그가 골프를 통해 스포츠 워싱(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세탁) 전략을 편다고 본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증산을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 언론들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최근 LIV 골프를 향한 미국 여론과 PGA투어의 포위 전략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9월 10일 LIV 골프 소속 선수 3명이 플레이오프에 뛠 수 있도록 PGA투어의 징계를 중단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담당 판

사는 “이들은 LIV 골프로 이적하면서 이미 상당한 계약 보너스와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대회 상금을 통해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며 “PGA투어의 플레이오프 출전 금지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9월10일 OWGR 사무국이 발표한 랭킹 산정 대상 투어 명단에서도 LIV 골프는 배제됐다. OWGR는 4라운드, 72홀, 예선이 있는 대회에 랭킹 포인트를 주는데 LIV 골프는 3라운드 54홀 경기에 컷 탈락도 없는 대회여서 제외된 것이다. 미켈슨과 디샴보 등 LIV 골프로 이적한 11명이 PGA투어에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OWGR과의 재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당장 LIV 골프는 3억 달러를 투자한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를 통해 소속 선수들의 세계 랭킹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종부세 세제개편안 검토 및 절세 방안

지난 7월 2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 출범 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 세부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writing. 오동욱 회계사·세무사(태운세무회계 대표)

종부세 개정안

구분	적용시기
① 주택 수에 따른 종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2023년
② 기본공제 금액 상향 (6억 원→9억 원)	
③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 상향 (11억 원→12억 원)	
④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조정 (300%→150%)	
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원 적용 (2022년 한시적)	2022년
⑥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⑦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총 7가지 개정 항목 중에 ①~④의 항목은 2023년부터 시행하고, ⑤~⑦의 항목은 2022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2022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1. 주택 수에 따른 종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현행 종부세의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즉,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2배 수준인 종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종부세의 주택 수는 세대별로 합산한 것이 아닌 인별 보유주택 수로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종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서울 비강남 지역에 15억 원 상당의 집 2채를 보유한 사람과 강남에 30억 원 집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 가치는 동일함에도, 다주택자란 이유만으로 15억 원 2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높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종과세율을 전면 폐지한다. 그리고 세율도 기존의 0.6%~3.0%에서 0.5%~2.7%로 소폭 인하한다.

2. 기본공제 금액 상향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중요한 것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란 양도세나 취득세의 1세대 1주택과 달리, '세대원 중에 1인'이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부의 경우에만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나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자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공제액을 인상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에서 11억 원을 공제해 주는데, 2023년부터 12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에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 14억 원을 적용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6억 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2023년부터는 9억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상속주택

- ① **저가주택·소액 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가액: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분: 40% 이하
- ②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수도권·광역시(군
제외)·특별시(읍·면 제외)를
제외한 지역

3.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과 지방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아 작은 공제액을 적용받고 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신설된 조항이다.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과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단,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되어 여전히 종부세 부과대상인 점은 동일하고, 세액공제도 상기 주택 외의 주택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4. 세부담 상한과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 대비 세부담이 증가되는 상한율을 정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는 300%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도 150%를 적용한다.

그리고 소득이 별로 없는 은퇴자이고 가진 건 집 한 채인데 집값이 올라 종부세 납부대상이 된 경우, 빚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구체적인 조건은 ①1세대 1주택자로 만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②직전 연도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③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단,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5. 종부세 절세 방안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보유한 주택에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세대 내의 1명이 주택을 모두 보유하는 것보다는 소유를 분산하여 각자 기본공제 6억 원(2023년부터 9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1) 1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1주택자 특례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관점에서는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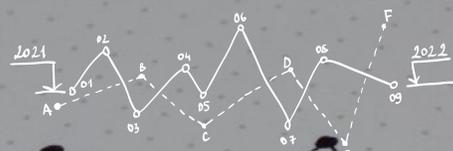
1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인 경우 ①2022년에는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한시적 14억 원이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로라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②2023년에는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12억 원이므로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세액공제 효과는 무시)

2)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보유주택 수가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종과되어 공동명의로 불리해진다. 공동명의로는 각자가 1주택씩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종과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씩을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과세율이 폐지되므로 조정지역 내 2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해도 각자 1주택씩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종부세가 부과된다.

2022

Financial Market



4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3/4분기 금융시장은 시장 금리가 반락하고 주식시장은 반등하는 등 급격한 위축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4분기 금융시장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3분기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불안정한 투자 흐름이 형성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점을 지나고 점차 완화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반면 경제지표 둔화가 가팔라지고 기업실적 악화가 본격화되면서 경기 둔화 또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변곡점을 지나는 인플레이션 우려 → 원자재 가격 하락, 공급망 우려와 타이트한 노동 시장 우려 완화 → 통화 긴축 강도 완화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분기 중 또는 4/4분기 초반 정점을 지나 점차 완화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7월 소비자물가까지 발표된 미국 물가는 6월 9.1%보다 낮지만 여전히 8.5%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9월 이후 발표되는 8월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물가는 아직 정점에서 변곡점을 형성하지 않는 모습이며 8월 추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8월 또는 9월 정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물가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다.

7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월 및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며 변곡점을 형성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보면, 약 두 달의 변동성은 남아 있지만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채권 시장에서 기간 스프레드를 결정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뚜렷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물가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정점을 지난 신호들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우선, 원자재 가격이나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부분이 고점 대비 하락해

있다. 원자재별로 가격 흐름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향이 큰 원유 흐름을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3월 초 고점 이후 등락은 있으나 20% 이상 하락한 모습이다.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러시아와의 거래 축소는 진척되고 있지만 가격에 더 전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목할 것은 공급망과 관련한 지표들 반락이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과 동행하며 밀접하게 움직이는 벌크선 운임인 BDI 지수는 전쟁 발발 후 크게 반등했지만 최근 크게 반락했고 지난해 4분기를 고점과 비교해 보면 이미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상해 등 중국 주요 항구들이 봉쇄되며 중국발 공급망 우려가 대두되었다. 현재 잔존하는 우려가 있으나 지금까지 상해발 컨테이너 운임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긴축으로 전환된 통화정책이나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의 마찰적 요인이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경기 둔화가 반영되며 공급망과 관련된 비용이나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미국 외에도 우리나라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물가에도 관심이 높는데 원자재 가격과 더불어

Investment

어 미국 인플레이의 한 축을 이루는 미국 노동시장에서도 타이트한 상황이 이완되는 흐름이 감지된다. 현재 미국이 당면한 인플레이션 우려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해 이탈한 대규모 노동자들로 본다(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노동시장 공급곡선의 이동). 이탈의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상의 공포와 보조금 지급이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를 거치며 미국 내에서는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탈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어 최근 고물가 등이 이탈노동자들의 생활을 압박하면서 노동시장 복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외식이나 숙박 및 여가 등 저임금 업종에서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은 노동 공급의 제약이 점차 완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은 더 뚜렷하다. 지난 4월 이후 미국 채권시장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인 손익분기 인플레이션(Break-Even Inflation, BEI)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물가 정점론이 형성된 영향일 수도 있지만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속되는 것은 미 연준이 미국 물가연동채권에 대한 순매수 기조를 접고 4월 이후 순매도로 전환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은 일반 국채금리에서 물가연동국채금리를 빼서 구한다. 이번 팬데믹 국면에서 미 연준은 물가연동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함으로써 물가연동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움직여 왔다고 보고 있는데 4월 이후는 그 반대 움직

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 연준의 채권 시장 분석 모델인 DKW모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 연준의 물가연동채권 순매도 전환 전후로 물가연동채권의 유동성 프리미엄 흐름이 방향을 반대로 전환했고 이 영향이 인플레이션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 강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추세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 채권시장 기대인플레이션(BEI)은 연준이 Tips 순매도로 전환한 4월 이후 반락 중 →기대인플레이션에 주목하는 것은 다른 물가지표와의 연관성,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 때문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물가 정점에 대한 높아진 기대는 자연스럽게 미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의 긴축정책 강도 완화 기대로 연결된다. 실제 7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이후 9월 미국 FOMC에서 7월과 같은 ‘자이언트 스텝(75bp 금리인상)’ 기대는 40% 이하로 줄어들었고 7월보다 줄어든 ‘빅스텝(50bp 금리인상)’ 기대는 60% 이상으로 상승했다. 통화긴축 강도 완화 기대는 그대로 금융시장에 반영되며 주식시장 반등과 시장금리를 반락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4/4분기 이후에도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동인이 된다.

뚜렷해지는 경기 둔화 조짐과 더 증가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 기업실적 둔화 본격화와 함께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 역시 견고하고 그 영향 역시 점증할 가능성도 높다. 3/4분기 이후 경기는 둔화 또는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지표를 보면, 생산이나 수출 등 현재 경기 상황을 설명해 주는 동행성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향후 경기를 가능해 주는 선행성지표나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뚜렷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전망기관의 경기 침체 경고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향후 경기침체 확률은 얼마나 될까? 과거 사례를 통해 보면, 경기 침체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침체로 연결되는 것은 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 이익 모멘텀의 둔화와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 하락이 가장 직접적인 동인이라는 점에서 현재 겪고 있는 높은 비용 상승은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다. 실제 1954년 이후 미국 경기 흐름을 보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5% 이상이고 실업률이 4% 미만인 시기는 8번 정도 있었는데, 8분기 이후 예외 없이 경기 침체로 귀결되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나타난 주요 지역별 경기 침체 확률 → 30%를 넘어서고 있는 미국과 유럽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실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확률은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 블룸버그의 12개월 내 경기침체 확률 수치를 보면 주요 나라별 경기침체 가능성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1년 내 침체 확률이 30%를 넘어선다. 확률적으로 보면, 블룸버그에서 계산하는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은 36% 수준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하는 확률도 20%대 후반 또는 30%선에 근접한다.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향후 경기 침체 확률은 30%선인 것이다. 경기에 대한 우려는 미 연준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미 연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조건에 따른 역사적 경기 침체 확률 (1955년~2019년 Data 사용)

TABLE	Avg quarterly wage inflation above :	Avg quarterly UR below :	Prob. Recession over next 4-quarters	Prob. Recession over next 8-quarters	Number of quarters	When did US economy most recently cross threshold?
Wage inflation only	3%	*	28%	51%	110	Q3 2021
	4%	*	33%	55%	67	Q3 2021
	5%	*	37%	66%	41	Q3 2021
Unemployment rate only	*	6%	24%	46%	115	Q2 2021
	*	5%	30%	55%	64	Q4 2021
	*	4%	40%	68%	25	Q1 2022
Wage inflation & unemployment rate	3%	6%	35%	63%	80	Q3 2021
	3%	5%	37%	63%	51	Q4 2021
	3%	4%	44%	65%	23	Q1 2022
	4%	6%	43%	70%	44	Q3 2021
	4%	5%	41%	62%	29	Q4 2021
	4%	4%	33%	60%	15	Q1 2022
	5%	6%	52%	91%	23	Q3 2021
	5%	5%	64%	100%	11	Q4 2021
	5%	4%	50%	100%	8	Q1 2022
Now	6.7%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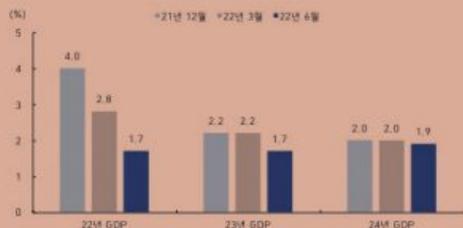
자료: NBER working paper 'A LABOR MARKET VIEW ON THE RISKS OF A U.S. HARD LANDING' 에서 내용 발췌

Investment

2022년과 2023년 미국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2월 4.0%와 2.2%로 제시되었으나 6월에는 각각 1.7%로 크게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2% 전후로 평가되는 미국 잠재성장률을 올해 성장률부터 향후 3년 동안 하회한다는 전망치로 볼 수 있다. 연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적하는 확장 국면(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국면)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국면)을 만들어 내는 둔화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미국 경기 둔화를 미 연준이 공식화한 것이다.

경기 침체 우려는 기업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목해서 봐야 하는 지표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후행지수의 상대적인 흐름이다. 우리는 동행지수 모멘텀과 후행지수 모멘텀의 차이를 기업이 이익 모멘텀을 의미하는 지표(Top-down Earning Momentum)로 사용한다.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은 산업생산이나 수출액 등 기업의 매출과 연관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후행지수는 고용이나 소비자물가, 금리 등 비용과 연관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 모멘텀의 차이는 기업이 이익 모멘텀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이 지표와 기업영업이익의 증감률은 연동성이 매우 높게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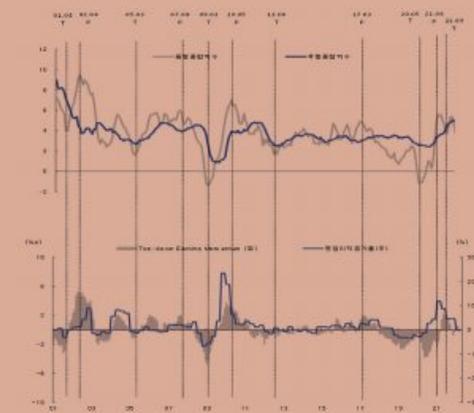
6월 전망에서 2022년과 2023년 미국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



자료: FRB, IBK투자증권

최근 우리나라 지표 흐름을 보면, 기업 매출과 연관된 동행지수 변동치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울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된 모습이고, 비용 부분을 의미하는 후행지수 변동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기업이 이익 환경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업 실적은 주식시장 부진에 비해 양호하지만 3분기 이후 둔화 가속화의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도 비슷하다. 주목할 점은 매크로 이익 모멘텀 지표의 하락이 경기선행지수처럼 경기 변곡점을 선행해서 보여 준다는 점이다. 기업 부문이 경제를 구성하는 세 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가계 실질 소득 하락으로 수요를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기업이익을 매개로 보면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이익 모멘텀 약화를 약화시킴으로써 수요를 위축시키는 고리가 된다. 결국 지금 매크로 이익 모멘텀 지표는 비용 측면이 부각되며 약화되고 있지만 조만간 매출 부분의 둔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4/4분기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생산지표로 보면 경기가 아직 크게 둔화되지 않았지만 가파른 비용 상승은 기업이익 모멘텀을 빠르게 악화시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Qunatwise, IBK투자증권 (주: Top-down Earning Momentum=동행지수 증가율-후행지수 증가율)

**여전히 안정성을 우선해서 대응하는 국면
→ 채권 비중과 배당주 투자 확대 국면,
장기적 관점의 성장주 분할 매수에 관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4/4분기는 여전히 불안정성이 높고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다. 위험자산을 무작정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유연한 투자전략이 필요한 국면이다. 일단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시기라고 판단된다. 안전 자산으로서 채권, 특히 국채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은 물가 정점론이 확산되는 추세인데, 3분기 말 이후에도 절대적인 상승률은 높을 테지만 점차 둔화되는 상승률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표의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을 물가 우려에서 경기 둔화 우려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 또는 매파적 발언 강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채권시장에서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할 듯하다. 또, 현재 채권시장이 하반기와 내년까지 매우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절대적인 시장 금리 수준이 높고 정책 당국이나 채권 투자자 모두 금리 수준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금리가 지금보다 완만하지만 낮아질 수 있는 이유로 생각된다.

주식 투자는 투자자들의 성향과 투자 기간별로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4/4분기에도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경기 둔화가 점점 더 심화되는 만큼 위험을 관리하고 투자 불안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단기 수익을 좇아 테마주를 따라다닐 경우 변동 폭이 확대되고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높은 배당을 주는 지주회사나 금융주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안정성이 높은 은행이나 지주회사들의 배당 수익률은 여전히 6%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 식들이 각광을 받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반면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성장주들(2차 전지 및 미래자동차, 플랫폼 및 메타버스, 차세대 에너지 및 친환경 등)의 분할 매수를 준비하는 시점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업종의 기업들은 정책의 수혜가 집중된 종목군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나 차세대 에너지, 친환경 이슈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그 미래가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 정부들의 2022년 이후 재정 지출에는 이들 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관심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향후 성장과 수익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문제는 팬데믹 국면에서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를 거치며 이들 성장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고평가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는 점이나 시장 금리가 통화정책 완화나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 하락세로 돌아서 있다는 점은 다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점임을 의미한다.

IBK기업은행의 자산관리를 이끌어 갈 MZ세대 대표 PB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직원을 선발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Young Star PB. 2022년 1기로 선발되어 영광의 자리에 이름을 올린 5명의 정예 멤버를 소개한다.

writing. 임산하 photograph. 김범기



Young Star PB

고객을 위해 빛을 밝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

(왼쪽부터) 백우득 VM팀장, 김준 PB팀장, 이경연 PB팀장, 전찬석 PB팀장, 엄지연 VM팀장

시장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든다

김준 PB팀장
시화WM센터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의견을 나누며,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 자료를 시각화하여 보여드립니다.”



공감을 통한 진심의 힘은 강하다. 김준 PB팀장은 고객을 만날 때 언제나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신뢰한다는 신호이며, 그 진실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과 진심을 나눈 뒤에 그는 정확한 상담으로 다음 걸음을 준비한다. 이때 김준 PB팀장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고객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자산 상담 주체는 다양하고 넓다. 그러므로 맞춤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의견을 나누며,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 자료를 시각화하여 보여드립니다. 고객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고객뿐 아니라 자금 운영에 많은 고민을 하는 기업고객과도 오랜 시간 소통을 해 온 그는 자산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PB로서의 길에 들어섰다. 매일 같이 시장의 변화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며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내일을 내다보는 그, 김준 PB팀장은 변화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고객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물결치지 않고 지나가는 하루는 없다. 그렇지만 미리 내다본 자에게 그 물결은 물길을 트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성심을 다해 기본을 지키며 나아가다

백우득 VM팀장
김포대곶지점



“PB가 금융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고객님에게도 가장 적합하면서 효율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 변함없는 자세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는 사람. 매일을 성심으로 고객과 만나는 그는 백우득 VM팀장이다. 단숨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서두르는 것은 시간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날마다 공부하는 자세로 내일을 준비한다. 고객과의 상담을 위해 AFPK, 외환전문역 1종, 2종, 파생상품투자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의 진심을 대변한다. 실제로 그는 2021년 상하반기 연속 평가 그룹별 1위인 VM MAESTRO를 수상하는 영광도 얻은 바 있다. 고객을 향한 진심이라는 토대 위에 역량을 세워가는 그는 Young Star PB 1기로서 “PB의 최우선 자질은 금융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힘 있게 말한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은행에 방문하시

는 고객님들이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양질의 금융정보일 것입니다. PB가 금융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고객님에게도 가장 적합하면서 효율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에게 고객은 가족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투자성향과 자금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되 리스크를 꼼꼼히 따지는 것도 잊지 않는다. 자신의 말이 적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무게와 긴장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백우득 VM팀장은 말한다. PB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고객이라고. 그는 고객에게 얻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기본을 지키며 나아가간다.

시장 환경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응하다

이경언 PB팀장
판교WM센터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되 유연한 사고와 겸손한 자세로 시장의 시그널을 받아들이며 올바르게 해석하고 끊임없이 성찰할 줄 아는 PB가 될 것을 매일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지도를 보는 것과 직접 걷는 것은 다르다. 지도의 기호들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만 실제 모습까지 보여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경험한 정보보다는 미약하다. 이를 알기 때문일까. 이경언 PB팀장은 본인이 직접 뛰어돌고 연구하여 창출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를 실행한다. 물론 그 전에 고객과의 충분한 상담과 사례 분석을 통해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시장 변동성을 감내하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성향과 부합하는 상품으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실행해야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도 함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자세로 언제나 촘촘하고 균형 있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그는 단기 목적자금부터 은퇴

설계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고객의 내일이 더욱 탄탄해지는 데 집중한다. “항상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을 되새깁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증대시킬 의무가 있는 PB로서 모르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잘못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되 유연한 사고와 겸손한 자세로 시장의 시그널을 받아들이며 올바르게 해석하고 끊임없이 성찰할 줄 아는 PB가 될 것을 매일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고객과의 신뢰에 앞서 PB로서 자신과의 신의를 중시하는 이경언 PB팀장. 그가 맺는 결실이 매일 같이 두터워지는 까닭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준비된 성실함으로 더 넓게 보다

전찬석 PB팀장
강남WM센터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투자상품도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이 발달할 것이며, 요즘 트렌드는 무엇인지 집중하는 눈을 가지고 더 멀리 보고자 합니다.”

다정함 속에 단단함을 갖고 있다면 정확할까. 전찬석 PB팀장의 역량은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 온 힘에 기인한다. 자동차 및 원전 분야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입학 이후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을 골고루 경험하면서 법학 학사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현재는 법학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중이다. 엔지니어에서 금융인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용기는 그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도전은 전찬석 PB팀장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그만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도움을 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큼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기술 발달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투자상

품도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이 발달할 것이며, 요즘 트렌드는 무엇인지 집중하는 눈을 가지고 더 멀리 보고자 합니다.” 게다가 사회 경제적 이슈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새로운 분야의 학습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에게는 어떤 변화도 두려울 것이 없다. Excellence is not a part-time job(탁월함은 시간제 근무가 아니다). 스티븐 L 프래드킨(Steven L. Fradkin)이 졸업 축하 연설에서 했던 말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전찬석 PB팀장. 그가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는 이유는 단 하나다. 준비된 성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고객과의 발전적인 대화로 방향을 선도하다

엄지연 VM팀장
방배중앙지점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 금융, NFT와 연결된 예술품 경매 등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는 엄지연 VM팀장. 그가 고객을 만날 때 중시하는 것은 ‘경청’이다. 경청은 기본이 아니냐고 누군가 반문할지 모르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엄지연 VM팀장의 능력은 고객과의 대화에서 빛을 발한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정확한 길로 방향을 잡아 주는 그. 이는 대화의 깊이에서 시작된다. “항상 경제 관련 이슈에 집중하고, 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 금융, NFT와 연결된 예술품 경매 등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엄지연 VM팀장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도 공부

하는 중인데, 그는 단순히 책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끝내지 않는다. 상가나 산업 센터 등을 직접 가 보며 발로 뛰어 현장감 있는 지식까지 섭렵한다. 그 덕에 고객들 또한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 개발의 동력은 결국 고객을 위한 성심이다. 온화한 미소 속에 강단을 갖고 있는 그의 모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이다. 고객을 우선하는 자세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전으로 중무장한 그. 2005년 입학 이후 어느덧 18년 차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산관리 업무를 즐겁게 하고 있다며 순수하게 웃어 보이는 엄지연 VM팀장에게 오늘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수수하지만 우아하게 빛나는 억새

가을이 무르익으니 억새가 손짓한다. 올가을엔 장관을 이루는 억새 군락으로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억새만의 품격에 우리의 마음도 신비롭게 물결칠지 모른다.

writing. 임산하 photograph. 한국관광공사 제공



제주 산굼부리

위치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768

화창하게 피어나 오래도록 마음을 적시다

자연의 색을 가감 없이 펼쳐 내는 제주. 가을이 되면 높은 하늘 아래 청명한 바람을 따라 물결치는 억새 군락을 만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곳은 산굼부리다. 오랜 기간 유명 관광지로서 이름을 떨쳐 왔기에 누구나 아는 곳이지만, 이는 그만 한 특별함이 숨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제주도 말인 ‘굼부리’는 화산체 분화구를 뜻한다. 특히 산굼부리는 완만한 형태의 마르(maar)형 화구로 우리나라에는 유일하며, 분화구는 생태의 보고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가을의 산굼부리는 ‘억새의 보고’로 그 역

할을 톡톡히 한다. 산굼부리로 오르는 길을 따라 하늘거리는 억새는 제주의 청량한 빛을 받아 더욱 따사롭게 빛난다. 억새 군락 주변으로는 어떤 인공물도 없기에 그저 자연 속을 누빌 수 있다. 한가롭게 거닐다 보면 문득 하늘에 석양이 깔리는데 이때가 장관이다. 서쪽으로 위엄 있게 서 있는 한라산 뒤로 해가 고개를 숙일 무렵, 한낮의 빛깔이 억새를 흠뻑 물들이며 서서히 사라진다. 그렇게 또 한 번 붙잡히지 않는 시간이 지나가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은 우리 마음에 스며 오래도록 남게 된다.



자연과 동화되어 은빛 억새 숲을 거닐다

황매산은 그리 유명한 곳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시간이 주는 진실한 힘을 채워 오며 이제는 ‘영남의 금강산’으로 불리게 된 황매산. 그 단단함이 있기 때문인지 황매산은 계절마다 고고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특히 가을철에는 흐드러진 억새가 너울 치며 비경을 만들어 낸다. 해발 900m 능선을 따라 잇따르는 억새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과 동화되어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소박하면서도 눈부신 자연의 품속에서 잠시 산신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황매산의 매력은 억새 군락처럼 끝이 없는데, 해발 850m 높이의 캠핑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은빛 억새를 하늘 삼아 쉴 수 있는 이곳 황매산오토캠핑장은 그야말로 가을 속에서 한껏 취하기에 제격이다. 가을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산내음에 마음을 정화하다 보면 어느새 해 질 녘이 찾아오고, 그 순간 억새가 하늘의 빛을 머금으며 세상이 단색으로 물드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그때 당신에게 무언가 찾아들지 모른다. 아마도 자연이 주는 순수한 위로가.

합천 황매산

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공원길 137-7





포천 명성산

위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1



강인하게 견뎌 온 역세의 고매한 강단

마치 눈이 온 것만 같은 이곳. 역세로 명성(名聲)이 자자한 명성산(鳴聲山)은 그야말로 사락대는 역세 군락의 울음소리(鳴聲)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매년 역세 축제를 개최할 만큼 역세의 아름다움을 빼곡히 간직한 명성산. 역세가 군락을 이루게 된 데에는 역세만이 간직하고 있는 생명력이 바탕이 되었다. 명성산은 오래 전 화전민이 일구던 밭이었는데, 거센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는 힘이 오늘날의 역세 군락을 만든 것이다. 역세밭은 험한 등산길 끝에 선물처럼 등장한다. 하늘과 맞닿은 드넓은 초원이 모두 역세로 너울대는 모습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하루하루를 살아 내며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더 강인하게 자란 역세는 작은 바람에도 산들거리며 몸을 이리저리 흔든다. 고개를 숙이되 꺾이지 않는 고매함으로 역세는 그렇게 물결친다. 이곳의 역세에게는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뎌 자만이 갖는 강단이 엿보인다.

서울 하늘공원

위치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도시에서 누리는 역세의 매력

20년 전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민 모두가 찾은 공원으로 환골탈태한 하늘공원. 가을이 오면 하늘공원은 역세 물결로 장관을 이룬다. 해발 98m 높이에 위치한 하늘공원에 가기 위해서는 땀방울이 전기차를 탑승하거나 걸어 올라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땀방울이 전기차를 타고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는 것도 좋지만 291계단 하나하나를 밟고 오르는 것도 나름의 재미다. 처음에는 계단 수에 압도되다가도 점차 시야가 넓어지며 서울의 매력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한강을 잇는 성산대교와 저 멀리 보이는 여의도 그리고 빌딩 숲 사이 촘촘한 가로수와 병풍처럼 서 있는 산가지, 웅기종기 모여 하나의 개성을 이룬 서울을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공원에 도착하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역세들이 우리를 반긴다. 약 5만 8,000평에 달하는 공원을 가득 채운 역세는 우리 마음을 간질이며 미소를 꺼내게 한다. 하늘공원의 역세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희망 전망대'에 들어가면 된다. 다른 이름은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설치 미술가 임옥상 작가의 작품이다. 이곳에서는 하늘공원 역세밭을 관망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셈이다.



가을이 오니 차에도 가을빛이 우리나네

제철. 때마침 우리에게 오는 시절.
세상 모든 것에는 제철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제철 음식만 한 보약은 없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만나는
제철 차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writing. 임산하



너른 품으로 건강을 지켜 주는 감잎차



발강게 익은 감나무에는 여전히 초록을 간직한 이파리가 가득하다. 초록의 생기가 응축되어 있는 감잎은 감보다 풍부한 비타민C가 있어 피부 미용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또한 떫은맛을 주는 탄닌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탄닌은 체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을 정화시키며 부기를 빼는 데 탁월한 효과를 자랑한다. 감의 과육처럼 달콤한 맛은 없지만 품고 있는 영양성분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 주는 감잎차. 감잎차는 그 어떤 것보다 감미롭고 따뜻한다.

마음에도 꽃잎이 피어나는 듯한 국화차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틈에서 소리 없이 다정하게 꽃을 피워내는 국화. 그 앞에 서면 왠지 생긋 미소를 짓게 된다. 꽃에게 진심을 건네받았기 때문이다. 국화차도 국화를 닮았다. 차분히 우리나라 노란빛이 마치 우리의 마음까지 물들이는 듯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머리를 맑게 하는 국화차는 눈도 맑게 하는데,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눈 건강을 개선시키므로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으로 눈이 피로한 이들에게 국화차만 한 명약은 없다.

내면이 단단하게 빛나는 모과차



울퉁불퉁한 모양새에 한소리 듣기 일쑤인 모과.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말에도 기죽지 않는 외유내강의 힘을 가진 모과는 늦가을 서리가 내릴 무렵 노랗게 익어 어두운 가을밤 은은한 조명처럼 빛난다. 모과는 예로부터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이름을 올리며 약재로 인정받았다. 모과의 장점이 우러난 모과차는 특유의 유기산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과 신경 통증을 풀어준다. 게다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이완시키는 것은 물론 다량의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가을바람이 실어 온 문화의 향기

전시 EXHIBITION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故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중 이중섭 작품 90여 점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중섭 기소장품을 모아 100여 점의 이중섭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 컬렉션'의 두 번째 전시로,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그림을 놓지 않았던 한국의 대표 화가 이중섭의 삶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를 따스하게 위로하는 그의 진실한 열정을 차분히 만나 보는 것은 어떨까.

●
일정 8월 12일~2023년 4월 23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뮤지컬 MUSICAL



<서편제>

작고한 이청준 작가의 소설 '서편제'를 원작으로 하는 창작 뮤지컬 <서편제>. 고통 속에서도 초연하게 운명을 맞잡는 송화와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서는 동호의 '소리 인생'을 정교하게 그려 내 호평을 받았던 <서편제>가 마지막 시즌으로 돌아왔다. 초연부터 송화 역으로 함께한 차지연, 이자람이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할 <서편제>는 작곡가 윤일상, 극작가 조광화, 연출가 이지나, 음악감독 김문정이 하나 되어 극의 몰입을 높인다.

●
일정 8월 12일~10월 23일
장소 광림아트센터 BBCH홀

발레 BALLET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국립발레단이 올가을 백조의 호수로 돌아온다. 9월 2일, 3일 전주 공연을 시작으로 여수, 대구, 서울에서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는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의 지휘와 천부적인 재능으로 사랑받는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안무로 클래식 발레의 걸작인 '백조의 호수'를 더욱 우아하고 세련되게 만들어 내었다. 선율처럼 움직이는 무용수들의 동작에 당신은 입을 다물지 못할지도 모른다.

●
일정 9월 2일~3일(전주) / 23일~24일(여수) / 29일~30일(대구) / 12일~16일 (서울)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여수 GS칼텍스 예올마루 / 대구오페라하우스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콘서트 CONCERT



<이날치 신작 '물 밑'>

'범 내려온다'로 우리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이날치가 새로운 무대에서 새 음악을 공개한다. '선녀와 나무꾼'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 하는 이날치. 그들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음률에 어떤 '사랑'이 담길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게다가 이번 콘서트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LG아트센터 서울의 개관 페스티벌로, 건축이 담고 있는 섬세한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다.

●
일정 10월 28일~10월 30일
장소 LG아트센터 서울



카미유 피사로
Camille Pissarro

에라니에서의 사과 수확
(Apple harvest at Eragny), 1888, 72×58cm

가을 햇빛이 밭에 머물며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는 지금, 농민들은 사과 수확에 한창이다. 그림인데도 마치 목소리가 들리는 듯 생동감이 넘치고, 인물들은 어디선가 봤던 것처럼 기시감이 느껴진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 낸 이 작품의 화가는 카미유 피사로다. 그는 “자연을 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현혹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대답해져야 한다.”라며 언제나 본질을 그려 내려 했다. 그 정직한 마음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닿아 있다.

WIN CLASS 서비스패키지

VIP 고객님들을 위한 IBK만의 품격있는 서비스



경조사



작명



골프백 배송



웨딩카·공항리무진



※ 서비스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오니 서비스의 이용가능 여부 및 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 바랍니다.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